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대선을 6주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아시아인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한인들은 62%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으며, 35%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

## 아시아 유권자, 해리스에 압도적 지지... 트럼프에 38% 앞서

### 아시아 중도 비영리단체 APIA Vote 조사 결과 압도적 리더 아시아계 중에서 한인들이 트럼프 지지율 가장 높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승패를 좌우할 핵심 유권자로 주목받고 있는 미국 아시아계 유권자들

들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인 유권자들은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지지가 많았으나,

아시아계 중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다.

중도 성향의 비영리단체 APIA Vote가 9월에 시카고 대학교 여론조사 센터(NORC)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아시아 유권자의 66%가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8면으로 계속

### MIT, 매사추세츠 최고 대학으로 선정... 하버드는 순위 밀려

유에스뉴스 대학평가, NE지역 8개 대학 상위 선정 졸업 후 사회적 신분 이동성 및 경제적 성공이 기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MIT와 하버드를 포함한 뉴잉글랜드 지역의 8개 대학이 미국 뉴스 &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의 전국 대학 순위에서 상위 50위 안에 선정되었다. 24일 발표된 이 순위는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학 평가로 꼽힌다.

이 대학 순위에 따르면 MIT는 2위, 하버드는 3위로 밀려났다. 예일은 5위, 브라운은 컬럼비아대와 공동 13위, 다트머스 칼리지는 UCLA와 함께 공동 15위를 차지했다. 보스턴 칼리지와 템스는 공동 37위, BU는 럿거스와 함께 41위에 올랐다.

노스이스턴 대학교는 상위 54위로 밀려났으며, 최근 각종 대학 평가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프린스턴 대학은 이번 유에스뉴스 순위에서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브라운대는 작년 9위에 ▶▶12면으로 계속

**신문을 독자여러분 손으로 배달해드립니다!**

클릭만 하시면 바로 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디지털 신문 이메일을 여러분 집에 격주로 배달해드립니다. 컴퓨터 데스크톱으로, 태블릿으로 또는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에 신문 전 페이지를 보내드리고 싶으시다면 지정한 기사를 송하시면 바로 골라만 하시면 PDF 지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크게 보고 싶으시다면 위와 4 버전을 눌러주세요. 물어보고 싶으시면 - 버튼을 눌러주세요.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 3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and 2024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년 보스턴 매거진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로 선정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COMPASS**

Jason Jeon is a real estate broker affiliated with Compas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Source: MLSPin total sales 2023.

# 한문수 보스턴 평통 회장, “윤 대통령 <8.15 통일 독트린> 적극 지지”

## 10월 6일, 마영애 상임위원 초청 북한 인권 강연 보스턴 평통위원 9명, 한국의 미주 해외지역회의 참여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 한문수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 회장을 비롯한 보스턴 지역 자문위원 9명은 지난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21기 미주 해외지역회의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0일 민주평통 미주 지역회의의 자문위원들과의 통일 안건 회의에서 지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 을 언급하며, 미주 자문위원들에게 외교 및 통일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 구성된다. 3대 통일 비전은 첫째,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둘째,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셋째,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다.

3대 추진 전략은 국내, 북한, 국제적 차원에서 첫째, 자유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 관과 역량 확충, 둘째,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셋째, 자유통일 대한

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등으로 구성된다.

보스턴협의회 한문수 회장은 미주지역회의 후 “윤 정부는 출범 이후 ‘신통일 미래 구상’, ‘새로운 통일담론’ 등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미래 청사진과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며,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고 말했다.

7대 추진 방안은 1. 미래 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2.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 3.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4.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확대, 5. 북한이탈주민들의 통일 역량 참여, 6.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7. ‘국제한반도포럼’ 창설 및 운영이다.

한 회장은 “보스턴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다” 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맥락에서 10월 6일 오후 3시 보스턴 한인교회(담임목사 이영길) 어린이 채플에서 탈북자이자 미국에서 성



공한 사업가가 된 마영애 상임위원을 초청해 ‘북한 인권에 관한 강연회’ 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평화통일 대한민

국을 지지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을 당부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 Pine Dental



Fitchburg, MA에서  
여러분의 치아를  
책임지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삶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394 water St.  
Fitchburg, MA 01420

Phone: 978.345.7400  
Pinedentalpc@gmail.com

#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SEP. 27th - OCT. 3rd, 2024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 NEW KIMCHI UNLOCKED: CILANTRO KIMCHI

Try Cilantro Kimchi, the latest Korean food trend that's both spicy and refreshingly cleansing for the palate.  
 시원하고 깔끔한 맛으로 어느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고수김치를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b>ZESPRI SunGold Kiwi</b> 제스프리 섀플드 키위 BOX <b>\$24.99</b>	<b>Garlic</b> 마늘 5 PCS/PKG <b>\$1.99</b>	<b>Kabocha</b> 단호박 LB <b>\$0.99</b>	<b>Korean Pear</b> 한국산 배 PRODUCT OF KOREA 8 CNT/10 CNT - BOX <b>\$34.99</b>	<b>Red Seedless Grape</b> 씨없는 적포도 LB <b>\$2.49</b>
<b>Lago Grape</b> 라고 포도 BOX <b>\$24.99</b>	<b>NEW CROP</b> <b>Korean Sweet Potato</b> 고구마 LB <b>\$2.49</b>	<b>Ginger</b> 생강 LB <b>\$2.99</b>	<b>Green Seedless Grape</b> 씨없는 청포도 LB <b>\$2.49</b>	<b>PULMUONE Tofu</b>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b>3 \$3.99</b> FOR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U.S.D.A. CHOICE</b>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소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b>\$9.99</b>	Fresh Ox Tail 생소꼬리 LB <b>\$14.99</b>
Fresh Whole Pork Baby Back Ribs 생돼지 등갈비 LB <b>\$3.99</b>	Fresh Sliced Pork CT Butt Steak 생돼지 목살 (소금구이용) LB <b>\$8.99</b>
Fresh Chicken Wing 생닭 날개 FAMILY PACK/LB <b>\$3.99</b>	Marinated Tenderized Beef Ribeye Steak 양념 별집 등심 스테이크 LB <b>\$8.99</b>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TONGTONGBAY Frozen Cooked Mussel Meat 통통배 냉동 자숙 홍합살 1 LB/PKG <b>\$3.49</b>	Head-on Shrimp 머리새우 20-30'S LB <b>\$4.99</b>
Frozen Whole Cleaned Calamari 손질된 한치 U10/LB <b>\$5.99</b>	Frozen Tilapia 틸라피아 600-800'S/LB <b>\$2.99</b>
TONGTONGBAY Frozen Yellow Croaker 통통배 참조기 300-400'S/LB <b>\$3.99</b>	Fresh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LB <b>\$6.99</b> <small>FRI/SAT/SUN/MON ONLY 금, 토, 일, 월 한정판매</small>

### SMART CARD MEMBER ONLY

RAW NATURE Sweet Rice 자연담은 찰쌀 15 LB <b>\$15.99</b>	KWANGCHEON Kakao Friends Apeach Crispy Seaweed + Shopping Bag 광천 카카오 프렌즈 어피치 파래김 (장바구니 포함) 0.14 OZ X 27 EA + BAG/PKG <b>\$11.99</b>
JINGA Abalone Porridge 진가 전복죽 14.8 OZ X 3 EA/BOX <b>\$11.99</b>	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PKG <b>\$10.99</b>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쌀 15 LB <b>\$14.99</b>	OTTOGI Jin Ramen 오뚜기 진라면 SPICY/MILD 4.23 OZ X 18 EA/BOX <b>\$19.99</b>	PULMUONE Roasting Seoul Jjajang 풀무원 로스팅 서울짜장 14 OZ (4 EA/PKG) <b>\$4.99</b>	CHUNG JUNGONE Sunchang Doenjang Soy Bean Paste 청정원 순창 재래식 생된장 6.17 LB <b>\$7.99</b>	CHUNG JUNGONE Dried Seaweed 청정원 남해안산 청정미역 5.29 OZ <b>\$5.99</b>
THE HOUSE MANDU Pork & Vegetable Dumpling 그 집 만두 참만두 1.65 LB <b>\$7.99</b>	NATURE'S YOKE Omega-3 Free-range Large Brown Eggs 네이처스 요크 방목형 오메가3 황란(대) 1 DOZ PKG <b>\$4.99</b>	HAIIO Canned Whelk 해오름 골뱅이 기획 세트 14.1 OZ X 2 CANS/PKG <b>\$11.99</b>	HAIOREUM Korean Style Noodles - Somen 해오름 소면 5 LB <b>\$4.99</b>	ORION Choco Pie Summer Watermelon 오리온 초코파이 수박맛 11.85 OZ <b>\$3.99</b>
HAITAI Ace Cracker 해태 에이스 크래커 12.84 OZ <b>\$3.99</b>	HAIIO Yuza/Ginger Tea with Honey 해오름 꿀 유자차/생강차 2.2 LB <b>\$5.99</b>	HELLO HOME Bear Hill Slipper 헬로홈 곰바닥 실내화 MEN - DARK GRAY/BROWN WOMEN - PINK/MINT PAIR <b>\$4.99</b> ←\$6.99	Plastic Dumpling Mold 플라스틱 만두 만들기 모형 EA <b>\$2.19</b> ←\$2.99	Stainless Steel Noodle Bowl 스텐 면기 23 CM/EA <b>\$5.99</b> ←\$8.49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 보스톤 우편 배달, 늦거나 아예 배달되지 않는 경우 발생

### 보스톤 시의회, USPS 서비스에 대한 긴급 청문회 요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시의회는 보스톤 지역의 많은 곳에서 미 우체국 (USPS)의 우편 배달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일부 시의원들은 이 같은 부실한 서비스가 연방 법률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론 듀칸, 헨리 산타나, 벤 웨버 시의원은 18일 정례회의에서 도시 전역의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USPS 서비스 불만을 조사하기 위해 긴급 청문회 명령을 제출했다.

듀칸 의원은 올여름 미션 힐 지역의 USPS 지점 폐쇄를 막기 위해 상원의원 에드 마키와 협력한 이후 이 지역 주민들이 우편을 받지 못한다는 보고를 듣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법에는 우편 서비스가 모든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되

어 있다" 며, "그러나 미션 힐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법적 및 재정적 문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취약한 이웃들은 필수적인 약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타나 의원은 미션 힐뿐만 아니라 락스베리, 도체스터, 매타팬, 브라이언에서도 몇 달 동안 우편이 늦게 도착하거나 아예 도착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들었다고 밝혔다. 다른 여러 시의원들도 수년간 비슷한 보고를 들어 왔다고 언급했다.

산타나 의원은 "이는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라며, "일부 지역사회가 우편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웨버 의원은 특히 다가오는 11월 선거를 고려할 때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편으로 투표하고 있다

며, "우리는 모든 투표가 유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우편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션 힐에서 30년 넘게 거주한 리처드 지오르다노는 자신의 지역에서 불규칙한 우편 배달 문제가 약 2년 전부터 있었으며, 최근 6개월 동안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전했다.

지오르다노는 자신의 이웃들이 청구서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납부 기한 하루 전에야 받는 사례를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2일 전에도 7월로 거슬러 올라가는 청구서를 받았으며, 여전히 수표로 청구서를 결제하는 자신에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지오르다노는 "우편 서비스를 믿고 사용하고 싶다. 우체국을 사용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우체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매사추세츠의 의원들이 이 문제에 개입해줄길 바란다 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를 현재 우체국장 루이스 드조이의 지도력이



초래한 연방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드조이가 대량 분류기를 해체하면서 우편 배달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8월 말, 에드워드 마키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포함한 매사추세츠 주의 연방 의원 10명은 USPS 매사추세츠 및 로드아일랜드 지구 매니저인 스캇 마니에와의 대면 회의를 요구하는 서한을 드조이에게 보냈다.

이들은 메드웨이와 워터타운의

우체국 폐쇄, 록스베리, 서머빌, 브루클라인에서의 우편 분실 및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USPS의 새로운 계획이 교외 지역의 우편 배달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스톤 시의회는 긴급 청문회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으며, 주민과 기업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서비스 문제의 원인을 조사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듀칸 의원은 밝혔다.

## 면역력 재충전

###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 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 Dedicated to Your Health

####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mailto: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http://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계봉

**DIRECTOR**  
781.654.5281  
j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김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lckim@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김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kim@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hy@bostonpremierrealty.com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박진진  
978.454.2043  
jpark@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파크  
617.447.0551  
nikipark@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파크  
617.780.7833  
p.park@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파크  
978.866.3248  
jpark@bostonpremierrealty.com



여현주  
401.535.3387  
yehyun@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파크  
617.838.5787  
s.park@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파크  
617.455.7710  
gpark@bostonpremierrealty.com



강수준  
617.838.8973  
kangsojun@bostonpremierrealty.com



파크 소연  
213.563.0997  
soyeon@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파크  
413.507.1402  
miki@bostonpremierrealty.com



선광환  
617.913.3588  
sunghwan@bostonpremierrealty.com



최준원  
617.877.9387  
jh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ayoung@bostonpremierrealty.com



박국숙  
781.898.1214  
gsook@bostonpremierrealty.com



최준원  
617.510.1182  
jh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근균  
617.843.8723  
jhpark@bostonpremierrealty.com



최준원  
604.611.0182  
jhpark@bostonpremierrealty.com



Tommy Woolfolk  
617.274.5610  
to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982  
nancywang@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2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Mian Yu  
617.933.2713  
mian.yu@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7.8978  
xian@bostonpremierrealty.com



Li Jang  
248.448.0117  
lijang@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638.9652  
jtra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23.103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508.873.8076  
michael@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a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3.28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8.7212  
lilywang@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38.8285  
cwei@bostonpremierrealty.com



반문희 박  
291.448.8589  
hwan@bostonpremierrealty.com



재이그 김  
781.596.0409  
jreid@bostonpremierrealty.com



이성진  
857.280.0434  
is@bostonpremierrealty.com



Nini Bolanger  
413.237.1886  
nini@bostonpremierrealty.com





# 美中 갈등 피해자?... "중국계 미국인 68%가 매달 차별 경험"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외교·경제 등 여러 영역에서 충돌하는 가운데 중국계 미국인 약 3분의 2가 자주 차별을 경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와 중국계 미국인 단체인 '100인 위원회'가 중국계 미국인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매달 평균적으로 적어도 한 가지 유형의 차별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85%는 차별당한 이유가 자신의 인종, 민족, 억양이나 이름 때문이라고 인식했다.

중국계 미국인의 89%가 현 미중 관계가 나쁘다고 봤으며, 65%는 지금의 미중 관계 때문에 다른 미국인들이 중국계를 부정적으로 대우한다고 평가했다.

67%는 미국의 여러 주(州)가 중국 국적자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도 중국계 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대우로 이어진다고 봤다.

76%는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중국계를 비롯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특히 문제가 되면서 전국적 이슈로 부각됐다.

코로나19를 중국의 탓으로 돌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를 규탄하고 대응에 나섰다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여전히 다수 중국계 미국인이 차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사는 중국계 혈통은 약 550만명으로 아시아계 중 가장 많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중국계 미국인의 76%가 오는 11월 대선 때 투표하겠다고 했다.

46%는 자신을 민주당으로 여겼으며, 31%는 공화당, 24%는 무소속이거나 지지 정당이 없었다.

중국계 미국인의 81%는 대선 후보들이 중국이나 미중 관계에 관해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적어도 약간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61%는 이런 주제에 대한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낮선 이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0%는 여론조사에 참여하기 전 30일 동안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했으며, 43%는 우울함을 경험했고, 39%는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100인 위원회'는 인종차별을 주기적으로 경험하거나 더 젊고 여성인 경우 이런 정신 건강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bluekey@yna.co.kr

# 아시아 유권자 해리스 앞도적 지지, 트럼프에 38%앞서

▶▶1면에 이어서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아시아 유권자는 28%에 불과했다. 지난 5월 같은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4%의 지지를 얻어, 29%를 얻은 트럼프를 15% 차이로 앞섰다.

대부분의 아시아계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보다 해리스 부통령을 선호했다. 필리핀계는 40%만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으나,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69%의 지지를 보였다. 인도계 또한 46%에서 69%로 크게 지지를 확대했다. 중국계는 54%에서 65%로 늘었다. 한인들은 49%에서 62%로 중국계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여전히 평균보다는 지지율이 낮았다.

한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에서 다른 아시아계와 달리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인들은 5월에 27%가 트럼프를 지지했지만, 9월에는 35%로 지지가 확대됐다. 반면 다른 아시아계들은 모두 20%대 중 후반의 지지율로 감소했다.

부통령 후보 지지를 살펴보면, 아시아 유권자들은 역시 민주당 후보에게 호감을 보였다. 아시아 유권자의 56%는 팀 왈츠 후보에게 호감도를 표시했고, 18%만이 비호감을 나타냈다. 반면 아시아 유권자의 단 21%만이 JD 밴스 부통령 후보에게 호감도를 보였으며, 무려 58%가 비호감도를 나타냈다.

아시아 유권자 중 77%는 올해 11월 확실하게 투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66%보다 향상된 수치이지만, 2020년 82%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던 것보다는 낮았다. 한인들은 82%의 유권자가 투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비교적 친민주당

성향을 보이긴 했지만, 공화당 측은 아시아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리스와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민주당이 아시아 유권자들에게 더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펼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시아 전체 유권자의 62%는 민주당 선거운동원으로부터 접촉을 받았다고 말했으나, 공화당 측 선거운동원으로부터 접촉 받은 유권자는 46%에 불과했다. 지난 5월에는 민주당 측이 45%, 공화당 측이 38%였던 것에 비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아시아 유권자들은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유권자층으로, 지난 4년간 15%가 증가했다. 아시아들은 2016년과 2020년에 연속적으로 가장 많은 투표 참여 수를 기록했으며, 특히 2020년에는 스윙 스테이트에서 상당수가 최초로 투표에 참여해 바이든의 승리에 기여했다.

APIA Vote의 공동 창설자이자 대표인 그리스틴 쉐는 "아시아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다시 한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양당은 결코 아시아 유권자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9월 3일부터 9일까지 아시아인 아메리칸 및 태평양 섬 주민(AAPI)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전화 설문을 통해 실시되었다. APIA Vote는 유권자 교육, 정치적 이슈에 대한 정보 제공, 선거 참여 독려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2년부터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투표 성향과 정치 참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SEP. 26th - OCT. 3rd, 2024



EXCLUDING BROOKLINE & CAMBRIDGE STORES

SUHYUP Frozen Soy Sauce & Spicy Marinated Crab  
 수협 간장게장 & 양념게장

**\$12.99**

LIMIT  
5

2.75 LB/BOX



HELLO! Disposable Plastic Poly Gloves

헬로! 비닐 위생 장갑

200 PCS/PKG

**\$2.19** ← ~~REG. 4.4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 매사추세츠, 해리스와 워런에 강력한 지지

### WBUR 여론조사, 무소속 유권자에서 61%대 22%로 앞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매사추세츠에서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크게 앞서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재선에 나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지지도 높게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56%가 공화당 도전자 존 디튼보다 워런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WBUR/Commonwealth Beacon의 의뢰로 매스 잉크여론그룹(MassINC Polling Group)이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8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오차 범위는 ±4.1%이다.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는 무소속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61%대 22%로 트럼프를 크게 앞섰다. 매스INC의 리치 과수석 연구 책임자는 "해리스가 매사추세츠에서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분명히 공감을 얻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다른 주에서도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1%만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견해는 주로 민주당원과 무소속 유권자에게서 나왔으며, 공화당원 중에서는 단 3%만이 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나라의 방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두드러졌다.

특히 매사추세츠 유권자들은 직업과 경제에 대해 가장 우려했다(55%). 그 뒤를 이어 낙태권과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유권자들의 우선순위는 당파에 따라 크게 달랐다. 민주당원은 민주주의의 미래와 낙태 문제를 가장 우려했으며, 공화당원은 경제와 이민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3선에 도전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56%의 지지를 확보해, 35%의 지지에 그친 존 디튼에 비해 안정적인 우위를 보였다.

공화당 변호사이자 암호화폐 옹

호자인 존 디튼은 응답자의 절반이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35%라는 높은 지지율을 획득했다. 그럼에도 커네티컷 정치학과 제럴드 듀켓 교수는 "디튼이 인기를 끌더라도 승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매사추세츠 유권자들 사이에서 워런 의원이 구조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런 의원은 소비자재정보호원(CFPB)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대형 은행의 각종 수수료 문제를 두고 소비자 편에서 의정 활동을 펼친 것이 매사추세츠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집계될 것이라고 믿는지에 대해서는 당파적 차이가 두드러졌다. 공화당원의 대다수인 65%는 투표 결과에 대해 불신을 표한 반면, 민주당원 중에서는 단 3%만이 그러한 우려를 보였다.

MassINC의 과 연구 책임자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 상황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사람들은 의회를 싫어하지만 자신의 지역의 의원은 좋아하고, 주 교육 시스템에 대해 우려하지만 자신의 학교는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의 분열은 선거 관련 폭력에 대한 질문에서도 나타났다.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선거 이후 주요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난 반면, WBUR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가 매사추세츠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 로드아일랜드 전기 요금, 올겨울 23% 인상

### 로드아일랜드 전력 이용 고객들, 평균 \$31 추가 부담 예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로드아일랜드 주민들은 이번 겨울, 전기 요금으로 여름보다 평균 약 31달러를 더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로드아일랜드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에서 승인된 이번 요금 인상은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현재 요금보다 약 23% 증가한 금액이다. 그러나 작년에 유틸리티 회사들이 고객들로부터 과도하게 받은 전기 요금을 환불하는 계획도 함께 승인되어 일부 요금 인상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요금은 킬로와트시당 16.4센트로, 작년 겨울 요금인 17.7센트보다 약 8% 낮다. 최근 몇 년 동안 로드아일랜드 주민들은 겨울철에 훨씬 높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해 왔다. 전기 요금은 2022년에 47%라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2023년에도 24% 인상되었다.

일례로, 3년 전인 2021년 겨울 요금은 킬로와트시당 10.4센트로, 그 전 여름의 7.7센트에서 인상되었다. 2020년 겨울에도 비슷한 수준인 10.95센트의 요금이 적용됐다.

로드아일랜드 에너지 대변인 캐롤라인 프레티만은 "전 세계적 지정학적 사건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에너지 공급의 높은 가격에 대해 우려

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로드아일랜드 주민 중 약 77%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적용된다. 지역 사회나 커뮤니티 통합 플랜 등의 전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된다.

로드아일랜드 에너지는 주전역에 7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500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일반 고객들은 월 31.30달러, 즉 22.8%의 요금 인상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겨울 요금은 작년 겨울보다 약 8달러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고객들은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높은 요금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필수적인 유틸리티 비용은 적절한 가격이 책정되어야 한다"며, 많은 이들이 요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는 작년에 과도하게 징수된 약 2,700만 달러를 환불하여 일부 인상된 비용을 상쇄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저소득층은 11월부터 6개월 동안 매달 23.47달러의 요금 크레딧을 받게 되어, 이번 겨울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다. 일반 주민들은 12월에 68.60달러의 일회성 크레딧을 받을 예정이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 MIT가 매사추세츠 최고 대학, 하버드 또 순위 밀려

▶▶1면에 이어서

서 4계단 하락했고, 다트머스는 지난해 18위에서 4계단 상승했다. 보스턴칼리지는 2순위, 템스대는 3순위, BU는 2순위를 각각 상승했다.

유에스뉴스는 올해 순위 산정에 있어서 '사회적 이동성'과 '졸업 후 성공'을 우선시했다고 밝혔다. 1,500개 이상의 대학을 17가지의 학문적 품질 지표를 사용해 평가했으며, 순위의 절반 이상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적절한 부채 부담으로 졸업하고 취업한 이후의 수입을 고려한 것이다. '사회적 이동'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변화, 특히 더 나은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유에스뉴스의 교육 부문 편집장 라몬트 존스는 "사회적 이동성과

졸업 후 성공과 같은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미래를 준비해줄 학교를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유에스뉴스의 순위는 그동안 교육의 질보다 대학의 명성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대학들은 참여를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리버럴 아츠 칼리지 순위에서도 뉴잉글랜드 소재 대학들은 높은 순위에 올랐다. 윌리엄스 칼리지가 1위를 차지했고, 애머스트 칼리지가 2위를 기록했다. 보든 칼리지는 포모나 칼리지와 공동 5위, 웰슬리 칼리지는 7위에 올랐다. 스

미스 칼리지는 웨슬리언 대학교와 공동 14위, 미들버리 칼리지는 워싱턴 & 리 대학교와 공동 19위를 차지했다. 콜비 칼리지는 25위, 베이츠 칼리지는 매칼레스터 칼리지와 공동 26위, 홀리 크로스 칼리지는 28위, 마운트 홀리오크 칼리지는 옥시덴탈 칼리지와 공동 34위에 올랐다.

유에스뉴스의 에릭 거틀러 회장 겸 CEO는 성명에서 "고등 교육의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유에스뉴스가 제공하는 베스트 칼리지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 2025 Best National College and University Rankings

1. Princeton University [N.J.]
2.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ass.]
3. Harvard University [Mass.]
4. Stanford University [Calif.]
5. Yale University [Conn.]
6.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alif.]
6. Duke University [N.C.]
6. Johns Hopkins University [Md.]
6. Northwestern University [Ill.]
10. University of Pennsylvania [Pa.]
11. Cornell University [N.Y.]
11. University of Chicago [Ill.]
13. Brown University [R.I.]
13. Columbia University [N.Y.]
15. Dartmouth College [N.H.]
15.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alif.]
17.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alif.]
18. Rice University [Tex.]
18. University of Notre Dame [Ind.]
18. Vanderbilt University [Tenn.]
21. Carnegie Mellon University [Pa.]
21.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ch.]
21.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Mo.]
24. Emory University [Ga.]
24. Georgetown University [D.C.]
24. University of Virginia [Va.]

27.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N.C.]
27.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Calif.]
29.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Calif.]
30. New York University [N.Y.]
30. University of Texas, Austin [Tex.]
30. University of Florida [Fla.]
33.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Ga.]
33.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Calif.]
33.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Calif.]
33.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Ill.]
37. Boston College [Mass.]
37. Tufts University [Mass.]
39.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Calif.]
39.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Wisc.]
41. Boston University [Mass.]
41.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N.J.]
41. The Ohio State University [O.H.]
44.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Md.]
44. University of Rochester [N.Y.]
46. Lehigh University [Pa.]
46. Purdue University, Main Campus [Ind.]
46. University of Georgia [Ga.]
46. University of Washington [Wash.]
46. Wake Forest University [N.C.]

### 2025 Best National Liberal Arts Colleges (including ties)

1. Williams College [Mass.]
2. Amherst College [Mass.]
3. Swarthmore College [Pa.]
4. United States Naval Academy [Md.]
5. Bowdoin College [M.E.]
5. Pomona College [Calif.]
7. Wellesley College [Mass.]
8. Carleton College [Minn.]
8. Claremont McKenna College [Calif.]
8. United States Air Force Academy [Col.]
8.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at West Point [N.Y.]
12. Harvey Mudd College [Calif.]
12. Vassar College [N.Y.]
14. Barnard College [N.Y.]
14. Davidson College [N.C.]
14. Hamilton College [N.Y.]
14. Smith College [Mass.]
14. Wesleyan University [Conn.]
19. Grinnell College [Ia.]
19. Middlebury College [Vt.]
19. Washington and Lee University [Va.]
22. Colgate University [N.Y.]
22. University of Richmond [Va.]
24. Haverford College [Pa.]
25. Colby College [M.E.]
26. Bates College [M.E.]

26. Macalester College [Minn.]
28. College of the Holy Cross [Mass.]
29. Bryn Mawr College [Pa.]
29. Colorado College [Colo.]
31. Bucknell University [Pa.]
31. Franklin & Marshall College [Pa.]
31. Lafayette College [Pa.]
34. Mount Holyoke College [Mass.]
34. Occidental College [Calif.]
36. Denison University [O.H.]
36. Pitzer College [Calif.]
36. Skidmore College [N.Y.]
36. Trinity College [Conn.]
40. Berea College [Ky.]
40. Spelman College [Ga.]
40. Trinity University [Tex.]
40. Union College [N.Y.]
44. Scripps College [Calif.]
45. Dickinson College [Pa.]
45. Furman University [S.C.]
45. Kenyon College [O.H.]
45. Soka University of America [Calif.]
45. The University of the South [Tenn.]
50. DePauw University [Ind.]
50. Hillsdale College [Mich.]
50. St. Olaf College [Minn.]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크라운
- 임플란트
- 잇몸 치료
- Invisalign
- Sleep Apnea

**보험**

- Delta Dental Premier,
- Blue Cross Blue Shield
-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ee@mwlc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 美대선후보 경제공약 키워드...해리스 '중산층' vs 트럼프 '관세'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해리스의 중산층 민생 개선이나,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와 관세 확대를 통한 자국 기업 살리기나'

11월5일(현지시간) 미국대선을 40여일 앞두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 키워드가 윤곽을 드러냈다.

24일 트럼프 전 대통령, 25일 해리스 부통령이 각각 경합주인 조지아주 서배나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경제 정책과 관련한 연설을 하면서다.

◇해리스, 중산층에 세제 혜택 집중하고 기업엔 증세...'분배' 강조

해리스 부통령은 25일 "강력한 중산층 형성을 내 대통령직을 결정짓는 목표이자 집권의 이유로 삼을 것임을 맹세한다"며 집권시 중산층을 위한 감세 등 대대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1억 명 이상의 중산층이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 서구적으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첫째(6천 달러(약 799만원))의 신생아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영유아 및 노인 돌봄 비용과 간병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공약했다.

아울러 중산층을 위한 300만채의 새 주택 건설 및 임대를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 및 건설업자들과 협력할 것이며, 첫 주택 구입자에게 계약금 용도로 2만5천달러(약 3천300만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식료품 가격 '바가지'를 막는 사상 첫 연방 차원의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공약했다.

기업 관련 세금 정책에서도 중산

층 강화 기조는 분명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 기업들에 세액 공제 혜택 줄 것이라고 밝혔고, 스타트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현재의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약 6천600만원)로 10배 상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법인세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해리스 캠프 제임스 싱어 대변인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법인세 세율을 현재의 21%에서 28%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식료품값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유통업체 등을 제재하는 연방 차원의 첫 입법에 나설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자본주의자"라면서 이념에 기반한 정책이 아닌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동시에 친중산층, 친노조 기조도 분명히 했다.

결국 중산층의 살림살이를 개선하는 것이 그의 세금 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한 것이다.

해리스가 이날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경제는 초고층 빌딩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해 잘 작동하면 가장 잘 되는 것으로, 실제로 그 빌딩을 건설하는 사람들과 배선공사를 하는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한 대목은 자신의 경제정책을 트럼프의 그것과 어떻게 차별화하려 하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 대목이었다.

◇트럼프, 법인세 인하 및 관세 확대로 자국 기업에 힘쓰고 제조업 회

귀 도모...기업 수익 극대화 통한 낙수효과 노리는듯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와 법인세를 활용한 제조업 국내 회귀를 핵심적인 경제정책으로 제시했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대세를 이루는 동안 미국 밖으로 나간 제조업 시설들을 관세 확대와 법인세 인하를 수단 삼아 회귀하게 함으로써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살리고, 그에 따라 세수도 확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일 "트럼프에 투표하면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연방 정부 땅에 극도로 낮은 세금과 규제만 있는 특별구역(special zone)을 미국 생산자를 위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여러분이 미국에서 상품을 제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상당한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한 뒤 "우리는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모든 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아울러 2017년 '트럼프 감세안'에 따라 현재 21%로 낮아진 법인세를 추가로 15%까지 인하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언급한 뒤 "이것은 내 제조업 르네상스 계획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와, 미국과 경쟁하는 타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관세 장벽의 '쌍끌이'로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한 뒤 그 혜택이 미국 전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는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른바 '낙수 효과'에 기반한 경제 정책을 내세운 셈이다.

◇미국 우선주의·중국 때리기는 공통분모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카드가 워낙 강렬했지만 해리스 부통령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표방하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드러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방영된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제철이 인수를 추진중인 US스틸에 대해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산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新) 산업들을 위해 미국 기업의 미국 노동자들이 철강을 제조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팬데믹 이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공급망 압박과 해외 제조에 대한 과도한 의존 문제를 인지하면서, 미국 기반 제조 시설을 의도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며 철강을 미국 내 산업 기반 보유가 필수적인 품목의 하

나로 꼽았다.

또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이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불공정한 보조금 관행과 초과 생산 등을 계속할 경우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할 경우 중국에 60% 이상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자신의 재임 시절 중국과 합의한 미국 산 농산물 등의 대량 수입 약속을 이행할 것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요구하겠다고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정책의 방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면적인 디커플링(decoupling·특정국을 공급망과 무역 등에서 전면적으로 분리하는 것)에 좀 더 가깝다면,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디리스크링(de-risking·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국한한 디커플링)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는 등 방법론에 차이는 있지만 '중국 때리기' 기조는 양측 경제 공약에서 나란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평이다.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New Nest Construction LLC**  
뉴네스트 건축

Residential Construction ranging from small handyman jobs to brand new construction. No job is too small.

Fully Licensed GC and HIC  
Licensed Realtor at BA Property and Lifestyle Advisors

Phone:  
**Thomas 339.227.7797**  
**Ruban 978.908.7390**

# 메타,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 공개... "스마트폰 다음 디바이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이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안경처럼 쓰는 증강현실(AR) 기기를 공개했다.

메타는 2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 본사에서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커넥트 2024'를 열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메타는 이날 행사에서 새로운 증강현실(AR)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Orion)'의 시제품을 공개했다.

이날 무대에 올라 직접 '오라이언'을 소개한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CEO)는 "지금까지 AR 기기에 대한 모든 시도는 헤드셋, 고글, 헬멧이었다"며 "오라이언이 스마트폰 다음의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은색의 두꺼운 빨테 안경처럼 생긴 '오라이언'은 안경처럼 쓰면 서 문자 메시지는 물론, 화상 통화, 유튜브 동영상까지 볼 수 있다.

이 스마트 안경에는 이용자의 시야에 표시할 수 있는 마이크로 렌즈가 장착돼 프로젝터를 통해 3D 이미지를 투사시켜 홀로그램의 증강 현실(AR) 기능이 구현된다.

이용자는 스마트 워치와 같은 손목 밴드와 눈의 운동을 추적하는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손으로 디스플레이를 '클릭'하거나 '스크롤'할 수 있다.

저커버그는 '오라이언'이 지금

까지 나온 스마트 안경 중 가장 큰 70도의 시야각을 제공하고, 일상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크기와 무게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무게와 출시 시기, 가격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메타는 2021년부터 에실로룩소티카와 함께 카메라와 스피커가 장착된 레이벤 브랜드의 스마트 글래스를 판매해 오고 있다.

그러나 '오라이언'은 통화와 이미지·동영상 등 촬영이 가능한 레이벤보다 한층 진화한 AR 기능이 구현되는 컴퓨팅 기기다.

메타가 약 10년간 자체 개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가 이날 공개한 데모 영상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오라이언을 착용해보는 모습도 담겼다.

황 CEO는 "트래킹(시선 추적)이 좋고, 밝기도 좋고, 색상 대비도 좋다"고 말했다.

AR 안경은 스마트폰의 뒤를 이어 핸드프리 시대를 열 차세대 스마트 기기로 주목받아왔다.

그동안 안경이라는 작은 기기에 많은 기능을 구현해야 하는 기술적 한계로 주춤했다가 구글과 애플 등이 최근 다시 개발에 박차를 나선 것으로 알려져 경쟁이 예상된다.

구글은 2013년 일반 소비자를 겨냥한 구글 안경을 내놨다가 높은 가격과 함께 내장 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면서 2015년 단종시켰다.



그러나 2년 전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프로토타입이라며 외국어를 번역해 자막처럼 띄워주는 스마트 안경을 선보이며 시장 재진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AR 기기 헤드셋 제조업체인 매직 리프(Magic Leap)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애플도 당초 내년 출시를 목표로 스마트 안경을 개발해 왔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보류돼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2025년 이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애플이 여전히 스마트 안경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소셜미디어 '스냅챗'을 서비스 하는 스냅은 자사의 5세대 스마트

안경인 스펙타클스를 최근 공개했다.

스펙타클스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은 물론, 오픈AI의 AI가 탑재돼 음성 대화도 가능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공개한 혼합현실(MR) 헤드셋 메타 퀘스트3의 보급형인 퀘스트3s도 공개됐다.

퀘스트3s는 퀘스트3보다 200달러 낮아진 299.99달러부터 시작한다. 예약판매는 이날부터 시작됐으며 내달 15일부터 배송이 이뤄진다.

메타는 또 자사의 AI 모델인 라마의 최신 버전인 라마 3.2를 공개하며, 멀티모달 기능을 갖춘 매개 변수 110억개, 800억개의 모델을 선보였다.

라마를 기반으로 하는 자사의 AI 챗봇인 '메타 AI'도 업데이트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메타가 소유한 SNS 등에서 한층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졌다.

영화 '007시리즈'에서 제임스본드의 상관인 'M'으로 나오는 영국 배우 주디 덴치 등 배우 5명과 계약해 '메타 AI'는 이들의 음성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스마트 안경 '레이벤'도 선보였다.

저커버그는 레이벤을 쓰고 실시간 번역 기능을 통해 상대방과 영어와 스페인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메타는 앞으로 더 많은 언어로도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taejong75@yna.co.kr

**성 안토인 디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평일미사**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세탁소 팝니다**

Care Cleaners  
20 Main St. North Reading, MA  
Sale Price : \$70,000  
Very good full plant

**연락처 : 603.401.0113**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 블루버드 바이오, 인력의 25% 감축

## 유전자 치료제 시장 경쟁 심화와 재정 압박에 따른 구조조정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서머빌에 위치한 바이오 회사 블루버드 바이오(bluebird bio)가 24일 전체 인력의 25%를 감축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블루버드 바이오는 지난해 말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시클셀 유전자 치료제의 승인을 받아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장을 열었으나, 최근 시장 상황과 재정적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승인된 치료제인 리프지니아(Lovgenia)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이번 승인과 동시에 크리스퍼(CRISPR)의 캐스제비(Cas-Zebi)도 최초의 유전자 가위 기반 난모양 적혈구 병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캐스제비는 이미 영국에서 먼저 승인되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가격도 리프지니아보다 100만 달러 더 저렴하다. 게다가 리프지니아에는 안전 경고 문구가 없어 더 안전한 약품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이유로 블루버드 바이오는

치료제 개발 후 막대한 재정적 보상을 기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적 손실을 계속 보고 있다. 블루버드 바이오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서머빌 본부뿐만 아니라 미국 내 40개 주에서 총 95명의 인력을 감축할 예정이다. 올해 6월까지 블루버드 바이오는 총 375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회사는 이번 구조조정으로 총 비용의 20%를 감축하고, 2025년 3분기에는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블루버드 바이오의 주가는 올해 들어 절반 가까이 하락했지만, 구조조정 발표 이후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다.

블루버드 바이오는 2022년에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체 인력의 3분의 1을 감축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리프지니아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블루버드 바이오는 41명의 환자에 대한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

혔다. 1분기에는 9명, 2분기에는 12명의 환자 치료에 그쳤으나, 3분기에는 20명의 환자가 치료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전자 치료의 시작과 회사의 수익 창출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차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유전자 치료제의 약값은 유전자를 채집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약이 환자에게 투입되고 나서 한 달 후에 수익으로 인식된다.

블루버드 바이오는 현 시점에서 리프지니아, 진테글로(Zynteglo), 스카이소니아(Skysona) 등 질병 치료제의 상업적 홍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블루버드 바이오의 CEO 앤드류 오벤사인은 “오늘 우리는 비용을 최적화하는 결단을 내렸고, 제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행동을 취했다” 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 美 2분기 성장률 확정치 3.0%... 1분기 성장률 1.6%로 상향

(뉴욕=연합뉴스) 이지현 특파원 = 미 상무부는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확정치)이 3.0%(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한 달 전 발표된 잠정치와 동일한 수치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에도 부합했다.

잠정치 때와 비교해 민간 재고투자, 연방정부지출이 상향됐으나 비주택 고정투자, 수출이 하향됐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확정치는 잠정치 추계 때는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 산출한다.

3.0%의 2분기 성장률은 1%대 후반대 언저리로 추정되는 미국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웃도는

수치다. 가계 소비 여력이 줄어들 것 이란 전문가 우려와 달리 미 경제는 탄탄한 소비를 바탕으로 2분기 들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계절조정)을 연간 성장률로 환산해서 GDP 통계를 발표한다.

한편 상무부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을 기존 발표된 1.4%에서 1.6%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간 재고투자와 주택 고정투자가 하향 조정됐으나 개인 소비가 상향 조정되면서 1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렸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pan@yna.co.kr

###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 한달동안 라이드해줄 분 구합니다 (체스넛힐)

9월 19일부터 10월18일까지

## 626.384.7231

### 웨스트보로 한국식당에서 서빙하실 분 구합니다

남녀 모두 가능  
영어 구사 상관없이 가능

## 508.330.6611

###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01) 강아지 움직임과 주식 투자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저녁 식사 후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러 나간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강아지 목줄을 길게 늘인다. 강아지는 한껏 자유를 느끼면 위아래는 물론 좌우로도 바쁘게 돌아다닌다. 강아지 움직임을 주시하면 정신이 쏙 빠진다. 주인은 강아지 움직임을 무시하고 산책의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간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주식시장(Random Walk Down Wall Street)이란 책이 50여년 전에 출판되었다. 책의 저자는 프린스턴 대학의 버트 맥키엘 교수이다. 책의 요점은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제멋대로 움직(Random)이기에 여기에 집중하면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변화는 강아지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다.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인은 강아지 움직임에 주시하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변화를 스마트 폰으로 수시로 점검하며 흥분된 마음으로 주식을 사고판다. 주식 투자가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이

다. 주식 정보는 끊임없이 나온다. 중요 미디어는 물론 인터넷 등에서도 매일 쏟아진다.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은 ‘어떠한 주식 정보보다 실패할 수 있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진다’고 조언한다. 실패하는 주식 투자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본다.

주식시장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예측(Market Timing)해서 투자하려고 한다. 본인도 알게 모르게 사람의 욕심으로 은연중 최저점에서 투자하기를 원하고 최고점에서 몽땅 팔기를 원한다. 이런 이유로 경제가 침체기로 가거나, 실업률, 이자율, 대통령 선거, 등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현실점 주식시장 상황에 의한 투자 결정은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지기 쉽다.

투자자 본인이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투자 결정이 다른 투자자는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의 투자자 90%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 기관(Instiution) 투

자이다. 그들은 정보력, 자금력, 탐구성, 등에서 개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좋은 투자를 위해서 온갖 시간과 정성을 기울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모른다(We don’t know what we don’t know)’는 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주식 투자가 흥분되고 짜릿한 느낌의 재미를 느낀다. 그래서 요즘 뜨거운(Hot) 종목을 찾고자 한다. 은연중 주식 대박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복권을 사는 마음과 비슷하다. 그러나 ‘제대로 하는 투자는 잔디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지루해야 한다’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필 샴얼슨이 언급했다.

투자 경비가 높은 종목 투자는 실패하는 투자의 지름길이다. 투자자 대부분은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모르면서 투자한다. 한 예로 어뉴이티는 이것저것을 보장한다고 말은 하지만 숨어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한 푼이라도 투자 경비가 적으면 그만큼 나의 호주머니로 들어온다. 금융산업 투자에선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투자 상품이 비싸면 제대로 된 상품이 아닐 확률이 높다.

비관적인 마음은 투자 손실로 이어진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에 가장 필요한 시간 즉 복리(Compound Interest)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난 5년 주식시장 연평균 무려 14% 이상이다. 지난 10년도 연평균 수익률은 12%이다. 나의 투자 돈이 3배로 증가할 놀라운 수익률이다. 워런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멩거는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주식 매수와 매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Waiting)에 있다’고 조언했다.

그때 그 시점 주위 상황에 의해서 주식시장은 변한다. 투자자는 의미 없는 강아지 움직임에 집중하지 않고 주인이 가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 인간의 본성은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노력한다. 이런 이유로 주식시장 전체는 더욱 더 커지는 것이며 주식시장에 꾸준히 투자한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47)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양도를 따랐으며 학문과 무도를 함께 익히며 자라났다. 군관은 힘이 세고 활쓰기를 잘해서 가히 당할 자가 없었다. 그러나 양도와 보랑 부부에게는 더없이 충직한 신하였다. 그때 양도의 폐신인 찰의(察義)가 미모로 아양을 떨며 보랑과 내통하면서 많은 전횡을 하였다. 이에 불의를 참지 못했던 군관이 검을 뽑아 찰의를 죽이려고 하였다. 보랑의 만류로 겨우 목숨을 건진 찰의는 그후로는 다시 낭정에 관여하지 못했다.

어느날 선덕여왕이 궁정에서 연회를 열었다. 거기에는 보랑부처도 초대되었다. 초대된 가빈(嘉賓)들의 고무주연은 흥겹게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이때 선덕여왕이 보랑을 조용히 불러서 뜬금없이 “든건대 너의 폐아(廢兒)가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 아름다움이 과연 어떠한가?” 라고 물었다. 이에 보랑은 선덕여왕이 찰의에 관해서 묻는 것임을 알면서 “신이 든건대 천자는 신하의 내사는 묻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폐하가 굳이 물으신다면 신첩에게는 한 명의 사신(私臣)이 있으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보랑은 군관을 데리고 선덕여왕에게로 갔다. 여왕은 이미 다른 사람임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네가 아름답다고 하는데 무슨 재주가 있는냐?” 라고 물었다. 군관은 “신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고 단지 마음 속에 있습니다

” 라고 대답하였다. 여왕은 다시 “네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자, 군관은 “신은 보랑 부처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고 보랑 부처는 폐하를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소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이것 뿐입니다” 라고 했다. 이에 선덕여왕은 술과 음식을 군관에게 내리고 보랑을 보며 “네가 데리고 있는 한 아이가 나의 열 아이보다 낫다. 잘 기르기를 바란다” 라고 하였다. 당시 선덕여왕은 삼서제도에 의하여 남편을 셋이나 맞았지만 후사를 보지 못했다. 선덕여왕의 셋 남자가 모두 가정을 이룬 것으로 보아, 여왕은 불임녀였다(화랑세기에는 선덕여왕의 공식적인 남편인 용춘(龍春), 흥빈(興飯), 을제(乙祭) 외에도 양도와 군관도 입사하였다. 양도와 군관은 이로 인하여 고승승진을 하였기에 많은 귀족들이 그것을 잘못으로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김군관은 양도와 함께 김유신과 무열왕 김춘추를 따라 삼국통일에 많은 전공을 세웠다. 680년 문무왕이 그를 상대등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681년 김흠돌이 흥원과 진공 등과 함께 역모를 꾀하다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이때 상대등으로 모반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죄명으로 처형(자결?)되었다. ‘흠돌의 난’에 군관의 적자/서자 등 여러 아들들도 참가하였다. 침착하고 중후하고 원대한 지략을 가지고

있어 수하의 낭도들을 잘 다스렸던 김군관은 643년 풍월주의 위치를 김천광에게로 물려주었다. 천광의 외모는 김군관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천광은 얼굴이 아름답은 꽃과 같고 교태는 마치 부인과 같았다고 화랑세기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말도 친철하고 거동도 단아했다고 한다. 하지만 마음은 험기가 있어서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우며, 자신의 의지를 과감하게 펼쳐 어느 상선의 영향력에도 동요되지 않고 화랑도를 이끌었다. 천광은 제24대 진흥왕의 증손자이다. 가계를 보면 아버지는 수품(상대등 636~?)이고 할아버지는 진흥왕의 적자(구륵)이다. 천광의 어머니 천장낭주 또한 진흥왕의 손녀이다. 진흥왕이 가야에서 온 후궁 월화와의 사이에서 천주를 낳았고, 천장은 천주의 딸이다. 천광의 할머니 반야공주 역시 진흥왕의 딸인데 반야의 어머니는 미실이다. 즉 구륵과 반야는 동부이복 남매인데 결혼하여 수품을 낳았다. 여성스러운 천광이 22세 풍월주 김양도의 천거로 화랑도의 수장인 풍월주에 올랐는데 그 내막에는 양도의 사랑이 숨어있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640년, 김양도는 풍월주의 위치를 부제 김군관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병부로 들어갔다. 양도는 670년 당나라에서 옥사할때까지 삼국통일을 위하여 수많은 전공을 세웠다. 양도를 이어 23세 풍월주에 오른 군관은 양도가 펼쳐던 정책을 그대로 이어 악습을 제거하고 순차적인 개혁을 통하여 화랑도의 조직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에 선덕여왕의 위로를 비롯한 많은 상선들의 지지를 받음과 동시에 아래로는 존경과 복종으로 따르지 않는 낭도들이 없었다.

군관의 부모는 동란과 석명공주이다. 동란의 부모는 동종과 오란이다. 동종은 거칠부의 아들이다. 오란의 부모는 오종과 비란이다. 오종의 부모는 입종과 사실공주이다. 진흥왕이 입종의 아들이니 오종은 진흥왕과 이복형제이다. 사실공주의 부모는 법흥왕과 보현공주인데 그들은 남매사이이다.

군관의 어머니 석명의 부모는 제25대 진지왕과 보명이다. 즉 석명과 양도의 어머니 양명은 이부동복의 자매이니 군관과 양도는 이종사촌간이다.

군관은 양도보다 세살 아래로 어릴때부터

#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51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가스라이팅 (gaslighting) !!”

요즘 들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가끔 듣게 된다. 유튜브 방송이나 정신 분야, 상담심리 분야 전문가들의 방송을 통해 듣게 된다. 나 역시도 상담학 공부를 계속하면서 심리 분야와 함께 정신질환 부분도 공부하게 되니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등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현실감각, 상황 등을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상대를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억압해서 의도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심리적 노예처럼 만드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자기의 외적 권위를 이용해서 누구를 억압하는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지만, 가스

라이팅의 가장 큰 문제는 외적 권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취약함을 이용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1938년 영국 극작가 패트릭 해밀턴(Patrick Hamilton)의 연극 <Gaslight>에서 남편이 교묘한 거짓말과 상황 조작으로 아내의 생각을 조종하고 서서히 정신병자로 몰아간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1938년 영국에서 시작하여 미국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인기리에 상연한 동명 연극을 미국 MGM에서 영화로 각색했다고 한다. 정체를 숨긴 채 자신과 결혼한 남편으로부터 교묘하게 조종당하며 정신적인 학대를 받는 아내를 연기한 잉그리드 버그만(Ingrid Bergman)이 오스카와 골든글러브에서 여우주연상을 안았다는 것이다.

이 영화는 1940년대 영화계에서 유행하던 ‘남편을 조심하라’ (Don't Tru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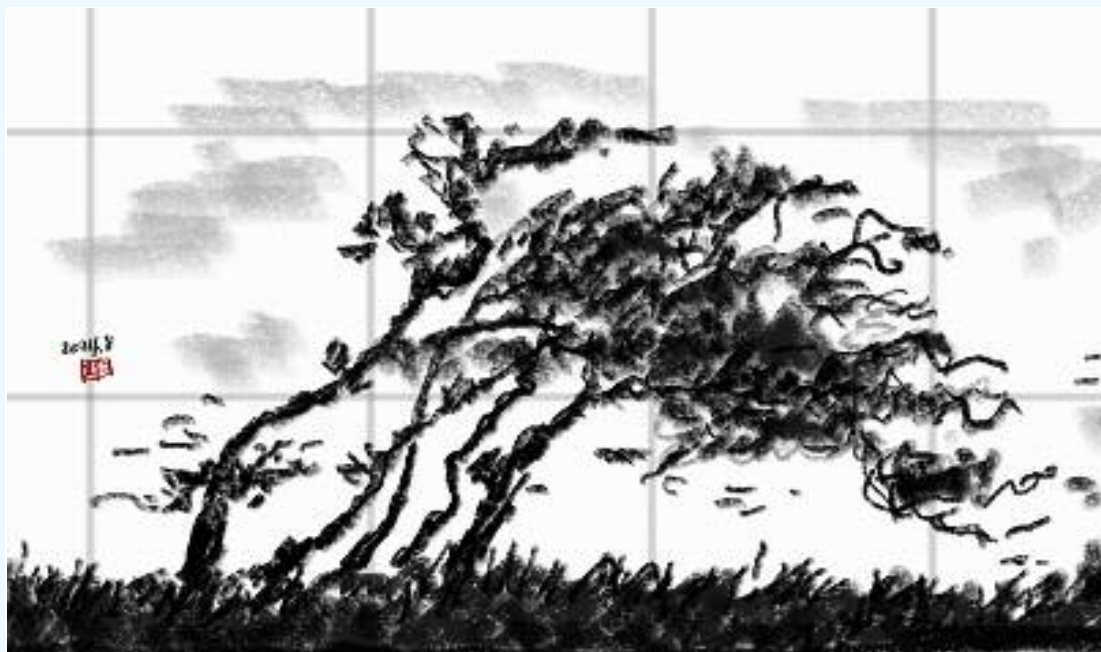
Your Husband)는 대표적인 느와르 테마로 부상했고 남을 교묘하게 조종한다는 심리학 용어 ‘가스라이팅’으로 널리 쓰여지게 되었다. 2019년에는 영화의 문화적, 사회적, 심미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미국 국회 의사당에 영구 보존되었다고 한다.

영화 속에서도 알겠지만, 남편이 아내를 조금씩 조금씩 심리적, 정신적으로 혼미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라진 브로치를 통해 이야기는 시작된다. 남편은 아내에게 브로치를 건네며 잃어버리면 안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당신은 물건을 잘 잃어버리잖아!’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암시를 하는 것이다. 아내는 얼마 후 가방을 열었다가 브로치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다. 없어요, 하고 당황하며 남편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날 용서하세요! 라며 말이다.

남편은 아내가 스스로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인지 기능(특히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간다. 그런 암시가 실제 사건(브로치 분실)을 통해 사실로 밝혀 짐으로써 피해자인 아내는 자신의 기억력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아내)가 본인의 잘못으로 느끼게 만들어 가해자(남편)의 눈치를 보고 사과를 하고 미안함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듯 가해자(남편)은 피해자(아내)를 경시하며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 남편은 또 가정부를 추켜세우는 동시에 아내를 깎아내림으로써 아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아내가 듣고 있는 줄 알면서도 가정부를 칭찬하면서 대놓고 평가를 하는 것이다. 아내 입장에서 비교당하고 무시 당하면서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gaslighting)’인 것이다. 흑여, 생각해 보라. 내가 ‘피해자’는 아닌가. 또는 ‘가해자’는 아닌가.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사는 일이 다 그러하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국 연속극에서 들었다. 딸아이가 어머니에게 묻는다. ‘엄마는 왜 나를 낳았어요?’ 어머니 대답이다. ‘내가 나왔으니까’ 질문은 도발적인데, 대답은 경쾌하다.

언젠가 같이 나누적이 있다. 이 지면을 통해서인데, 왜 사냐고 묻는다면 그냥 웃지요. 시 일테지만, 질문이 잘못되었으니 올바른 대답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냥 빙긋 웃을 수밖에. 가벼운 미소로 대답을 대신하는 거다. 하긴 사는 일에 왜 사는지 이유와 목적을 굳이

찾을 필요는 없겠다. 꽤 오래전 나온 책이 있다. ‘목적 이끄는 삶’ 이 책 제목이다. 릭워렌 목사가 지었는데,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터. 원 제목은 The Purpose Driven Life 인데, 목적있는 삶이라 얼핏 제목을 바꾼다.

시조 한편이다. 제목이 바람의 힘이다. 사는 일이 다 그렇고 그렇다. 그러나 시인의 삶이 심드렁하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우리네 삶엔 기쁨도 있고 슬픈 날도 무심히 지나갈 것이라고 읽히는 거

다. 이런 걸 달관達觀이라 하던가.

바람이 불었다 어느 날 갑자기 더위가 사라졌다 언제 그랬냐는 듯 사는 일 다 그렇다 기쁨도 슬픔도 (홍사성, 바람의 힘 중에서)

시에 해설이 붙었다. 참으로 그러하다. 지난 여름, 한국에선 그렇게 무덥더니, 장마가 오더니, 태풍이 휩쓸고 가더니, 더위마저 사

그러 졌단다. 보스톤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동안 무척 덥더니, 한동안 날이 흐려 빗방울도 자주 뿌려 대더니, 사나운 바람도 불었더랬다. 그러나 몇일 사이에 날은 맑게 개었고, 기온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바람도 오히려 선선했던 거다. 언제 그랬냐 싶었는데 우리네 삶처럼 말이다.

바람을 탓하라. 바람을 고마워하라. 바람부는대로 바람이 불면 웅크리고, 비가 오면 비를 피하면 될 것이다. 나오겠다면 나오도록 도울 밖에.

= 가을이다. 가을 바람에 풀잎은 누울 것이다. 아니 바짝 앞드릴 수도 있다. 바람 찾아지는 때를 기다리는 바. 단지 한모금 물이 필요하고, 한줄기 햇볕을 기다리는 거다.

한창 곡식이 익어 갈게다. 몰아치는 바람과 오고 가는 비를 견디고 이제 누렇게 익어가는 거다. 그동안 살아내고 자라느라 고생 많았다. 고개 숙여 인사한다. 익어 머리숙인 벼이삭처럼 말이다.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다 (읍기 26:5)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경험하지 못했던 어지럼증, 숨어 있는 급·만성질환 여부 점검해야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어지럼증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신경과 조 소영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살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어지럼증 증상이 생겼다면 주변 가족과 지인에게 현재 상태를 알리고, 현재 내 증상이 응급한 문제인지 아닌지 침착하게 체크해야 한다.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구토가 동반될 때, 주변 가구를 붙잡고 있어도 서있기 어려울 때, 물체가 돌로 보이거나 시야장애가 있을 때, 옆사람이 보기에 눈이 심하게 흔들릴 때, 안검하수가 있을 때, 팔과 다리의 감각이 무디고 힘이 갑자기 빠질 때, 말이 어눌하고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을 때, 의식이 명료하지 않을 때 등 평소와 다르다면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다.

설령 이런 증상이 없다 해도 어지럼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방치해서는 안 된다. 흡연, 고도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부정맥, 심

혈관 질환 혹은 뇌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다면 우선 뇌졸중과 뇌졸중 전조증상 여부를 감별해야 한다.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 신경염, 미로염, 편두통이 흔한 어지럼증의 원인이지만 이런 질환들과 뇌졸중을 단순히 증상으로 감별하기는 어렵다. 특히 양성 질환인 전정 신경염과 미로염은 초기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잦아들지 않으며 구토를 동반해 보행조차 힘들기 때문에 뇌졸중과 증상이 매우 흡사하다.

전정성 편두통은 어지럼증 센터 내원 환자 중 많게는 30% 정도를 차지하는 매우 흔한 질환이다. 단순히 초점을 '두통' 과 '통증' 에만 맞추면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체위에 따라 어지럼증이 생기니 이석증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또 마치 메니에르병처럼 이명(귀에서 소리가 나는데)이 동반되기도 한다.

한편, 사고로 인한 뇌진탕 후에도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한다. 보통 3개월 내 호전되지만 그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직접적인 충격으로 뇌에 크고 작은 손상이 생기고,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 요인도 가세한다. 뇌 손상이 아니더라도

귀 내부 말초 평형 기관 손상으로 어지럼증과 두통이 생길 수 있어 뇌진탕 후 흔히 올 수 있는 증상이다.

나이가 들면서 발병률이 증가하는 치매와 파킨슨병 등 다양한 퇴행성 질환에서도 어지럼증은 동반된다. 어지럼증과 함께 기억력 저하와 보행, 균형 장애가 섞여 나타난다.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는 운동계 퇴행성 질환은 균형 장애도 흔하지만 실신 직전의 아득한 어지럼증을 많이 호소하는데 신경퇴행성 변화가 자율신경계에도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반복적인 실신으로 내원해 자율신경계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신경 기능을 평가하는 항목도 다양하며, 임상적 의미가 없는 사례도 많다. 따라서 해석하는 의사 역량이 중요하다. 부정맥과 심부전 등 심장 질환도 반복 실신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순환기내과(심장내과)와의 협진도 진단과 치료 예후에 중요한 부분이다.

신경과 외래환자 4명 중 1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는데, 어지럼증 증상에 숨어 있는 질환

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급성, 만성 질환을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험하지 못했던 어지럼증, 숨어 있는 급·만성 질환 여부 점검해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 Discover the of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Honoring our collective history, building a brighter future together.

Save the Date and Join Us

**Korea Day, Oct. 4, 2024 | YLS @ Top Golf, Nov. 10, 2024**



Emcee  
**Tiffany Chan**  
WBZ News



Featured Artist  
**Yeonsoo Kim**  
Artist of 2024 Moon Awards



Featured Musician  
**Mina Cho**  
Multifaceted scholar, jazz pianist, and composer



Performance by  
**BAKTA**  
Pungmul Ensemble,  
The Ulim ("Resonance")



Performance by  
**NANTA**  
Nanta Traditional Korean  
Drummers



Musician  
**Aaron Yu**  
Berklee College of Music

PRESENTED BY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개천절**

**TIME & PLACE**  
Friday, October 4, 2024  
12 PM to 2 PM  
MA State House - Great Hall

**RSVP**  
<https://KoreaDay2024.eventbrite.com>



Honorary Sponsor  
**The Overseas  
Korean Agency**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Boston



Honorary Sponsor  
**Eastern Bank**

**Resources:**

- AAPI Commission
- Boston Korea
- CKA - Boston Chapter
-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 Commonwealth Seminar
- Eastern Bank
- Health Connector
- KACL-NE
- Korean Cultural Society
- OKTA Boston
- And more . . .

*Traditional Korean Food while supplies last.*

## KOREAN KIMCHI BAR



Eastern Bank is committed to recognizing the good in our communities and celebrating the work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We proudly support 2024 KOREA DAY**

Congratulations to the Moon Award Nominees





# 한인회장 후보등록 공고

제 43 대 매사추세츠 한인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매사추세츠 한인사회를 이끌어 갈 제 43대 한인회장 후보를 공모합니다. 한인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각 한인 및 미국 단체와 원활한 유대 관계를 유지할 유능하신 분들의 등록을 바랍니다.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아래와 같이 회칙에 의거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한인회장 입후보자의 서류 접수를 공고합니다.

## 1. 후보자 등록 기간

2024년 10월 1일 - 10월 31일

## 2. 등록 방법

- 후보자의 이력서와 추천인 25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원장에게 제출.  
김동원 (선관위위원장) dentikim@hotmail.com  
최영진 (선관위간사) cyj09271@gmail.com

### 〈공탁금 : \$5,000〉

공탁금은 회칙에 따라 선거에 사용된 지출을 정산한뒤 서류와 함께 남은 금액을 43대 당선자 집행부에 이관한다,

## 3. 선출 방법

- 후보자가 2인 이상. (선거인 명부 작성후 직접 투표로 선출. 자세한 내용은 양측 후보와 의논한다)
- 단수 후보일 경우 선관위가 서류 검토를 거쳐 선관위원장이 당선자를 직접 발표한다.

## 4. 선거 장소

한인회관 (13 Campbell St. Woburn, MA 01801)

## 매사추세츠 한인회장 선거관리 위원장

김동원( 42대 부 이사장)

## 선거관리 위원

김영기(32대 회장)  
허훈 (42대 이사)  
최영진(42대 이사)  
박혜원(42대 수석 부회장)





# 마영애 북한인권 강연회

**일시:** 2024년 10월 6일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보스톤 한인교회 어린이 채플 (ECC Chapel),  
32 Harvard Street, Brookline, MA 02445

**문의:** 이기환 준비위원장 (781.572.8044) & 한문수 (617.519.4500)

## 마영애 박사 약력

평양 출신 북한인권활동가  
민주평통 상임위원  
북한인권상 수상 - 미국  
평생공로상 -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자원봉사상 - 미국 바이든 대통령  
한미동맹 70주년 평화상 수상자  
마영애 평양순대 대표  
국제 탈북민 인권연대 대표  
한미경찰자문위원회 이사장  
Korean Community Outreach & Human Rights  
국제 인권상 수상자 (2020년 12월 2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 협의회**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